

2006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박종필*·김두화**

〈 목 차 〉

I. 서 론	IV. 요약 및 결론
II. 조사대상 및 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분석 및 해석	<Abstract>

I. 서 론

현대사회가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어 따라,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고등학교 졸업생수보다 대학의 입학생수가 더 많아진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표면화 되고 있으며, 학생정원미충원으로 인한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인해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폐교 위기에 빠진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다(소황옥외 2인, 2004).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현실화 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국·공립대학 통합에 따른 각종 지원책들을 통해 국·공립대학의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재건을 목표로 하여 국립대학의 재편성 및 통합을 통해 국립대학의 수를 12개로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21세기에 100개 대학을 세계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인 '211 공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교수

정'을 통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총 733개의 대학을 288개 대학으로 통합 및 합병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종합 대학화 및 중점대학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세계일보, 2004).

이러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및 외국대학들의 변화 노력에 위기감을 느낀 각 대학들은 특성화를 내세우면서 교육의 질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입학정원의 미달사태를 막기 위해 신입생 유치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소황옥외 2인, 2004).

현재 우리 제주대학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지역의 중점대학으로 안주하지 않고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타 대학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원도 예외는 아니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6학년도 신입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일반적인 사항,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대학생활, 대학의 이미지와 자긍심, 학과 선택의 과정 및 교수 등과의 관계, 가치관과 직업능력개발원의 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향후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연구 및 행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Ⅱ.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제주대학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전체 신입생들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1,633명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3명을 제외한 1,61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한 신입생들의 성, 단과대학별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성, 대학별 조사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대 학	인 문 대 학	277	17.2	
	법 정 대 학	182	11.3	
	경 상 대 학	301	18.7	
	사 법 대 학	126	7.8	
	생 명 자 원 과 학 대 학	91	5.7	
	해 양 과 학 대 학	159	9.9	
	자 연 과 학 대 학	160	9.9	
	공 과 대 학	299	18.6	
	의 과 대 학	15	0.9	
	전	체	1,610	100
성 별	남	자	951	59.1
	여	자	659	40.9
	전	체	1,610	100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 재수경험,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의 생존여부, 보호자 학력 및 직업,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2) 대학생활 관련

대학진학의 목적, 대학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일,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예상되는 문제점,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 희망여부,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

유,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 갖고 싶은 직종,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활동의 이유

3) 대학 및 학부(과) 선택 관련

본교에 대한 인식, 본교 선택시 고려사항, 본교 지원시 정보의 수집경로, 타 시·도 학생들에 대한 홍보방법, 지망학부(과) 선택시기,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적합도

4) 교수 및 강의 관련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원하는 강의방법

5)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자격,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6) 직업능력개발원 관련

대학생활 중 주요 상담원,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희망여부 및 상담내용, 받고 싶은 심리검사,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참여의사, 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

3. 조사 실시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2006년 2월, 제주대학교 신입생 전체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학부(과)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학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및 해석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1)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는 아래의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 전체의 65.0%가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서귀포시 14.1%, 북제주군 9.1%와 남제주군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 출신이 92.2%였으며, 타 시·도 출신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부산 및 경남 출신이 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에 소재한 고교를 졸업한 신입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65.3%가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귀포시 14.5%, 북제주군 8.9%와 남제주군 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제주시 64.6%, 서귀포시 13.5%, 북제주군 9.4%와 남제주군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단과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공과대(97.4%)였으며, 이어서 경상대 96.3%, 해양대 95.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범대(80.2%), 자연대(79.4%)와 의과대(73.4%)는 제주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제 주 시	185 (66.8)	124 (68.1)	197 (65.4)	79 (62.7)	49 (53.8)	117 (73.6)	69 (43.1)	217 (72.6)	10 (66.7)	621 (65.3)	426 (64.6)	1,047 (65.0)
서 귀 포 시	37 (13.4)	23 (12.6)	47 (15.6)	20 (15.9)	19 (20.9)	11 (6.9)	34 (21.3)	35 (11.7)	1 (6.7)	138 (14.5)	89 (13.5)	227 (14.1)
북 제 주 군	27 (9.7)	16 (8.8)	33 (11.0)	2 (1.6)	6 (6.6)	13 (8.2)	16 (10.0)	34 (11.4)		85 (8.9)	62 (9.4)	147 (9.1)
남 제 주 군	17 (6.1)	8 (4.4)	13 (4.3)		2 (2.2)	11 (6.9)	8 (5.0)	5 (1.7)		40 (4.2)	24 (3.6)	64 (4.0)
서 울		1 (0.5)	2 (0.7)	2 (1.6)	3 (3.3)	2 (1.3)	12 (7.5)			13 (1.4)	9 (1.4)	22 (1.4)
인천·경기도	1 (0.4)	3 (1.6)	2 (0.7)		1 (1.1)	2 (1.3)	2 (1.3)	2 (0.7)		7 (0.7)	6 (0.9)	13 (0.8)
강 원 도				1 (0.8)	2 (2.2)		3 (1.9)			1 (0.1)	5 (0.8)	6 (0.4)
충 청 북 도			3 (1.0)	1 (0.8)						1 (0.1)	3 (0.5)	4 (0.2)
대 전 · 충 남				3 (2.4)		1 (0.6)	2 (1.3)			5 (0.5)	1 (0.2)	6 (0.4)
대 구 · 경 북	2 (0.7)			1 (0.8)	2 (2.2)			1 (0.3)	1 (6.7)	3 (0.3)	4 (0.6)	7 (0.4)
부 산 · 경 남	1 (0.4)	4 (2.2)	1 (0.3)	9 (7.1)	2 (2.2)	1 (0.6)	13 (8.1)	1 (0.3)	1 (6.7)	19 (2.0)	14 (2.1)	33 (2.0)
전 라 북 도	5 (1.8)	1 (0.5)	1 (0.3)	1 (0.8)	2 (2.2)			2 (0.7)		4 (0.4)	8 (1.2)	12 (0.7)
광 주 · 전 남	2 (0.7)	2 (1.1)	2 (0.7)	7 (5.6)	3 (3.3)	1 (0.6)	1 (0.6)	2 (0.7)	2 (13.3)	14 (1.5)	8 (1.2)	22 (1.4)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2) 재수경험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재수경험은 아래의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의 90.5%가 재수를 하지 않고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를 한 경우는 9.2%에 불과하였으며, 이중 1년 재수가 7.4%로 재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91.0%)이 남학생(90.1%) 보다 재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재수경험은 남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 95.7%, 인문대 93.9%, 그리고 법정대 93.4%의 순으로 재수를 하지 않고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년 재수경험의 비율은 사범대 22.2%, 다음으로 의과대가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수경험의 비율은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 및 직업관련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재수경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없 다	260 (93.9)	170 (93.4)	269 (89.4)	94 (74.6)	81 (89.0)	148 (93.1)	139 (86.9)	286 (95.7)	10 (66.7)	857 (90.1)	600 (91.0)	1,457 (90.5)
1년 재수	15 (5.4)	7 (3.8)	31 (10.3)	28 (22.2)	6 (6.6)	9 (5.7)	9 (5.6)	11 (3.7)	3 (20.0)	82 (8.4)	48 (7.3)	119 (7.4)
2년 재수	1 (0.4)	3 (1.6)	1 (0.3)		2 (2.2)	1 (0.6)	9 (5.6)	1 (0.3)	1 (1.2)	5 (0.5)	6 (0.9)	19 (1.2)
3년이상 재수				4 (3.2)	1 (1.1)		3 (1.9)	1 (0.3)	1 (1.2)	10 (1.0)	3 (0.5)	10 (0.6)
검정고시	1 (0.4)	2 (1.1)			1 (1.1)	1 (0.6)				3 (0.3)	2 (0.3)	5 (0.3)
계	277 (100)	192 (100)	301 (100)	121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79 (100)	659 (100)	1,610 (100)

3) 보호자와의 관계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의 보호자의 대부분은 부모(93.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부편모가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항목들은 0.5% 내외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가 보호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93.7%)이 여학생(92.9%)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편부편모인 비율은 여학생(4.9%)이 남학생(3.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아도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타 대학에 비해 생명대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90.1%), 편부편모인 비율(7.7%)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 보호자와의 관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부 모	257 (92.8)	170 (93.4)	282 (93.7)	114 (90.5)	82 (90.1)	153 (96.2)	154 (96.3)	277 (92.6)	14 (93.3)	891 (93.7)	612 (92.9)	1,503 (93.4)
편부편모	10 (3.6)	8 (4.4)	12 (4.0)	8 (6.3)	7 (7.7)	3 (1.9)	5 (3.1)	15 (5.0)	1 (6.7)	37 (3.9)	32 (4.9)	69 (4.3)
형·누나	2 (0.7)		1 (0.3)					1 (0.3)		2 (0.2)	2 (0.3)	4 (0.2)
조 부모	4 (1.4)	1 (0.5)	1 (0.3)		1 (1.1)	1 (0.6)	1 (0.6)	2 (0.7)		4 (0.4)	7 (1.1)	11 (0.7)
친 척		2 (1.1)	1 (0.3)			2 (1.3)		1 (0.3)		6 (0.6)		6 (0.4)
기 타	4 (1.4)	1 (0.5)	4 (1.3)	4 (3.2)	1 (1.1)			3 (1.0)		11 (1.2)	6 (0.9)	17 (1.1)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4) 부모의 생존여부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아래의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대부분(86.2%)은 부모 모두가 생존해 계시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경우로는 양친이 이혼한 경우가 4.4%, 그리고 현재 양친이 별거중인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단과대학 별로도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4> 부모의 생존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양친 생존 동거	242 (87.4)	157 (86.3)	260 (86.4)	111 (88.1)	75 (82.4)	134 (84.3)	136 (85.0)	260 (87.0)	13 (86.7)	821 (86.3)	567 (86.0)	1,388 (86.2)
양친 생존 별거 중	5 (1.8)	4 (2.2)	13 (4.3)	6 (4.8)	3 (3.3)	12 (7.3)	13 (8.1)	6 (2.0)		41 (4.3)	21 (3.2)	62 (3.9)
양친 생존 이혼	16 (5.8)	9 (4.9)	12 (4.0)	3 (2.4)	9 (9.9)	4 (2.5)	6 (3.8)	12 (4.0)		38 (4.0)	33 (5.0)	71 (4.4)
양친 모두 사망	2 (0.7)		2 (0.7)			1 (0.6)		3 (1.0)		6 (0.6)	2 (0.3)	8 (0.5)
부사망	9 (3.2)	8 (4.4)	10 (3.3)	6 (4.8)	4 (4.4)	6 (3.8)	5 (3.1)	14 (4.7)	2 (13.3)	33 (3.5)	31 (4.7)	64 (4.0)
모사망	1 (0.4)	2 (1.1)	4 (1.3)			2 (1.3)		4 (1.3)		10 (1.1)	3 (0.5)	13 (0.8)
기타	2 (0.7)	2 (1.1)								2 (0.2)	2 (0.3)	4 (0.2)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5) 보호자의 학력

2006학년도 신입생의 보호자의 학력분포는 아래의 <표 1-5>과 같다. <표 1-5>에 제시되어 있는 것 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56.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졸 30.7%, 그리고 대학원 9.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33.1%)들이 대졸이상의 보호자를 둔 경우가 남학생(29.1%)들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의 비율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57.4%, 여학생 55.2%).

단과대학별로 보면, 전체적인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사범대(45.2%)와 의과대(40.0%)만은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가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반대로 다른 단과대학과는 달리 보호자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상인 비율이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비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범대 54.8%, 의과대 60.0%).

<표 1-5> 보호자의 학력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고 졸 이 하	158 (57.0)	100 (54.9)	168 (55.8)	57 (45.2)	55 (60.4)	102 (64.2)	99 (61.9)	165 (55.2)	6 (40.0)	546 (57.4)	364 (55.2)	910 (56.5)
대학교 중퇴 및 졸 업	84 (30.3)	58 (31.9)	102 (33.9)	47 (37.3)	22 (24.2)	39 (24.5)	42 (26.3)	96 (32.1)	5 (33.3)	277 (29.1)	218 (33.1)	495 (30.7)
대학원 이상	23 (8.3)	15 (8.2)	19 (6.3)	22 (17.5)	10 (11.0)	12 (7.5)	17 (10.6)	27 (9.0)	4 (26.7)	94 (9.9)	55 (8.3)	149 (9.3)
기 타	12 (4.3)	8 (4.4)	12 (4.0)		3 (3.3)	6 (3.8)	1 (0.6)	11 (3.7)		33 (3.5)	20 (3.0)	53 (3.3)
무 응 답		1 (0.5)			1 (1.1)		1 (0.6)			1 (0.1)	2 (0.3)	3 (0.2)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6) 보호자의 직업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직업분포는 아래의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1-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호자의 직업비율은 기타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직업들 중에서는 서비스업이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건설업(13.0%), 공무원(10.6%), 그리고 상업(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신입생들이 제주도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직업현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보호자의 직업이 기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인 경우가 14.7%와 15.9%로 가장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보호자의 직업이 서비스업인 비율이 더 높았고, 반면에 건설업, 공무원 및 상업인 비율은 남학생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비율은 의과대(20.0%), 인문대(17.0%), 자연대(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과대는 상업(26.7%)이, 공과대와 생명대는 건설업의 비율(각각 19.1%와 16.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범대의 경우에는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 및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6> 보호자의 직업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서비스업	47 (17.0)	30 (16.5)	39 (13.0)	21 (16.7)	14 (15.4)	26 (16.4)	27 (16.9)	38 (12.7)	3 (20.0)	140 (14.7)	105 (15.9)	245 (15.2)
건설업	41 (14.8)	21 (11.5)	36 (12.0)	6 (4.8)	15 (16.5)	12 (7.5)	19 (11.9)	57 (19.1)	2 (13.3)	127 (13.4)	82 (12.4)	209 (13.0)
공무원	24 (8.7)	24 (13.2)	25 (8.3)	17 (13.5)	8 (8.8)	20 (12.6)	15 (9.4)	36 (12.0)	1 (6.7)	110 (11.6)	60 (9.1)	170 (10.6)
상업	26 (9.4)	7 (3.8)	32 (10.6)	15 (11.9)	8 (8.8)	18 (11.3)	13 (8.1)	26 (8.7)	4 (26.7)	93 (9.8)	56 (8.5)	149 (9.3)
교사	8 (2.9)	10 (5.5)	9 (3.0)	15 (11.9)	4 (4.4)	7 (4.4)	5 (3.1)	14 (4.7)	3 (20.0)	48 (5.0)	27 (4.1)	75 (4.7)
운수업	11 (4.0)	11 (6.0)	10 (3.3)	6 (4.8)	4 (4.4)	16 (10.1)	6 (3.8)	10 (3.3)		41 (4.3)	33 (5.0)	74 (4.6)
목축업	13 (4.7)	8 (4.4)	13 (4.3)	2 (1.6)	6 (6.6)	5 (3.1)	5 (3.1)	13 (4.3)		44 (4.6)	21 (3.2)	65 (4.0)
수산업	9 (3.2)	3 (1.6)	16 (5.3)			7 (4.4)	5 (3.1)	9 (3.0)		29 (3.0)	20 (3.0)	49 (3.0)
임업	5 (1.8)	1 (0.5)	3 (1.0)	3 (2.4)	1 (1.1)	1 (0.6)	4 (2.5)	7 (2.3)		15 (1.6)	10 (1.5)	25 (1.6)
금융업	5 (1.8)	2 (1.1)	6 (2.0)		1 (1.1)	2 (1.3)	4 (2.5)	5 (1.7)		16 (1.7)	9 (1.4)	25 (1.6)
제조업	2 (0.7)	6 (3.3)	1 (0.3)	3 (2.4)	3 (3.3)		5 (3.1)	1 (0.3)		9 (0.9)	12 (1.8)	21 (1.3)
통신업	1 (0.4)	4 (2.2)	1 (0.3)	3 (2.4)	1 (1.1)	1 (0.6)	-	4 (1.3)		11 (1.2)	4 (0.6)	15 (0.9)
의사				4 (3.2)			1 (0.6)	1 (0.3)		6 (0.6)		6 (0.4)
법조인	1 (0.4)	2 (1.1)								2 (0.2)	1 (0.2)	3 (0.2)
기타	84 (30.3)	53 (29.1)	110 (36.5)	31 (24.6)	26 (28.6)	44 (27.7)	51 (31.9)	78 (26.1)	2 (13.3)	260 (27.3)	219 (33.2)	479 (29.8)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7)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에 대한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1-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담할 사람이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8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이라고 나타났다. 나머지는 각각 1%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90.6%)이 남학생(89.3%)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본인이 부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근소한 차이로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부모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가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사범대 92.1%, 해양대 91.2%의 순으로 나타났고, 생명대가 8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생명대가 1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공과대 8.4%, 해양대 8.2%의 순이었으며, 자연대의 경우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부 모	249 (89.9)	165 (90.7)	269 (89.4)	116 (92.1)	77 (84.6)	145 (91.2)	152 (95.0)	260 (87.0)	13 (86.7)	849 (89.3)	597 (90.6)	1,446 (89.8)
조부모	4 (1.4)	1 (0.5)	4 (1.3)		2 (2.2)		1 (0.6)	5 (1.7)		12 (1.3)	5 (0.8)	17 (1.1)
형 제	3 (1.1)	3 (1.6)				1 (0.6)				5 (0.5)	2 (0.3)	7 (0.4)
친 척	4 (1.4)	1 (0.5)	6 (2.0)	1 (0.8)			1 (0.6)	2 (0.7)		5 (0.5)	10 (1.5)	15 (0.9)
본 인	16 (5.8)	12 (6.6)	21 (7.0)	9 (7.1)	10 (11.0)	13 (8.2)	4 (2.5)	25 (8.4)	1 (6.7)	72 (7.6)	39 (5.9)	111 (6.9)
기 타	1 (0.4)		1 (0.3)		2 (2.2)		2 (1.3)	7 (2.3)	1 (6.7)	8 (0.8)	6 (0.9)	14 (0.9)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2. 대학생활 관련

1) 대학진학의 목적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대학진학 목적은 아래의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 주된 목적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50.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27.8%), 그리고 기타(11.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여 차이 없이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학생(50.7%)과 여학생(50.4%)의 응답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30.2%)이 남학생(26.2%)들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모든 단과대학들의 신입생들은 대학진학의 목적을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의과대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대(65.6%)와 생명대(57.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대는 4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문대의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1> 대학진학의 목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115 (41.5)	98 (53.8)	142 (47.2)	70 (55.6)	52 (57.1)	65 (40.9)	105 (65.6)	157 (52.5)	10 (66.7)	482 (50.7)	332 (50.4)	814 (50.6)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107 (38.6)	50 (27.5)	78 (25.9)	36 (28.6)	18 (19.8)	34 (21.4)	30 (18.8)	91 (30.4)	4 (26.7)	249 (26.2)	199 (30.2)	448 (27.8)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8 (2.9)	16 (8.8)	9 (3.0)	2 (1.6)	5 (5.5)	5 (3.1)	8 (5.0)	14 (4.7)		49 (5.2)	18 (2.7)	67 (4.2)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9 (3.2)	4 (2.2)	11 (3.7)	2 (1.6)	7 (7.7)	16 (10.1)		8 (2.7)	1 (6.7)	32 (3.4)	26 (3.9)	58 (3.6)
교양 습득을 위해서	7 (2.5)	4 (2.2)	7 (2.3)	1 (0.8)	3 (3.3)	8 (5.0)	5 (3.1)	3 (1.0)		23 (2.4)	15 (2.3)	38 (2.4)
기 타	31 (11.2)	10 (5.5)	54 (17.9)	15 (11.9)	6 (6.6)	31 (19.5)	12 (7.5)	26 (8.7)		116 (12.2)	69 (10.5)	185 (11.5)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2)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아래의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전공공부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다양한 사회경험(24.2%),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23.3%), 자격시험 준비(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지한 이성교제 및 각종 동아리 활동은 2.2%와 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여 차이 없이 전공공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여학생(40.1%)들의 비율이 남학생(27.4%)의 비율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 넓은 대인관계 형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5.9%)이 여학생(19.6%) 보다 더 높게 났으며, 다양한 사회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남학생(24.5%)이 여학생(23.7%)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진지한 이성교제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이 3.4%인 반면 여학생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전공공부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 법정대, 공과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사회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 법정대, 생명대, 해양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연대(13.1%)와 법정대(11.0%)는 자격시험 준비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2>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 공 공 부	115 (41.5)	44 (24.2)	102 (33.9)	55 (43.7)	30 (33.0)	32 (20.1)	52 (32.5)	86 (28.8)	9 (60.0)	261 (27.4)	264 (40.1)	525 (32.6)
다 양 사 회 경 험	57 (20.6)	52 (28.6)	75 (24.9)	22 (17.5)	26 (28.6)	40 (25.2)	26 (16.3)	88 (29.4)	3 (20.0)	233 (24.5)	156 (23.7)	389 (24.2)
폭 넓은 대 인 관 계 형 성	59 (21.3)	46 (25.3)	67 (22.3)	26 (20.6)	19 (20.9)	40 (25.2)	42 (26.3)	75 (25.1)	1 (6.7)	246 (25.9)	129 (19.6)	375 (23.3)
자 격 시 험 준 비	17 (6.1)	20 (11.0)	20 (6.6)	11 (8.7)	7 (7.7)	15 (9.4)	21 (13.1)	25 (8.4)		81 (8.5)	55 (8.3)	136 (8.4)
각 종 동 아 리 동 활	10 (3.6)	3 (1.6)	6 (2.0)	1 (0.8)	3 (3.3)	7 (4.4)	5 (3.1)	8 (2.7)	1 (6.7)	35 (3.7)	9 (1.4)	44 (2.7)
교 양 지 식 습 득	8 (2.9)	9 (4.9)	10 (3.3)	6 (4.8)		5 (3.1)	2 (1.3)	1 (0.3)		20 (2.1)	21 (3.2)	41 (2.5)
진 지 한 이 성 교 제	4 (1.4)	5 (2.7)	7 (2.3)	2 (1.6)	2 (2.2)	6 (3.8)	4 (2.5)	6 (2.0)		32 (3.4)	4 (0.6)	36 (2.2)
기 타	7 (2.5)	3 (1.6)	14 (4.7)	3 (2.4)	4 (4.4)	14 (8.8)	8 (5.0)	10 (3.3)	1 (6.7)	43 (4.5)	21 (3.2)	64 (4.0)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3)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회가 된다면 가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9.9%,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7.8%로 전체 응답자 중 77.7%가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 의미를 찾지 못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학생의 비율은 85.3%로 남학생의 72.3%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14.6%)들에 비해 남학생(25.1%)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인문대가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의과대 80.0%, 경상대 80.0%, 사범대 7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대는 6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가 가장 높았으며(33.8%), 이어서 해양대 23.9%, 생명대 22.0%의 순이었으며, 인문대는 1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별 의미를 찾지 못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문대가 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겠다	125 (45.1)	64 (35.2)	134 (44.5)	48 (38.1)	27 (29.7)	56 (35.2)	36 (22.5)	109 (36.5)	9 (60.0)	314 (33.0)	294 (44.6)	608 (37.8)
기회가 된다면 가 보 겠 다	104 (37.5)	79 (43.4)	107 (35.5)	52 (41.3)	43 (47.3)	61 (38.4)	66 (41.3)	127 (42.5)	3 (20.0)	374 (39.3)	268 (40.7)	642 (39.9)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	46 (16.6)	37 (20.3)	55 (18.3)	25 (19.8)	20 (22.0)	38 (23.9)	54 (33.8)	57 (19.1)	3 (20.0)	239 (25.1)	96 (14.6)	335 (20.8)
별의미를 찾지 못 하 겠 다	2 (0.7)	2 (1.1)	5 (1.7)	1 (0.8)	1 (1.1)	4 (2.5)	4 (2.5)	6 (2.0)		24 (2.5)	1 (0.2)	28 (1.6)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4)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문제점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응답한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래의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예상 문제점으로는 40.1%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학점 취득하기 25.0%, 시간 및 생활관리하기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차이 없이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가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40.5%)이 여학생(39.5%) 보다 더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학점 취득하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27.8%)이 남학생(23.1%)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학점 취득하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대 28.2%, 경상대 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과대가 44.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해양대 44.0%, 경상대 4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시간 및 생활 관리하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40.0%로 가장 높았고, 사범대 39.7%, 법정대 2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가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사범대와 의과대인 경우에는 시간 및 생활 관리하기라는 반응이 가장 높았다.

<표 2-4> 대학생활 중 예상되는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진로에 대한 방향세우기	112 (40.4)	66 (36.3)	130 (43.2)	31 (24.6)	38 (41.8)	70 (44.0)	62 (38.8)	133 (44.5)	3 (20.0)	385 (40.5)	260 (39.5)	645 (40.1)
학점 취득하기	78 (28.2)	37 (20.3)	78 (25.9)	28 (22.2)	21 (23.1)	40 (25.2)	49 (30.6)	70 (23.4)	2 (13.3)	220 (23.1)	183 (27.8)	403 (25.0)
시간 및 생활 관리하기	47 (17.0)	45 (24.7)	52 (17.3)	50 (39.7)	15 (16.5)	20 (12.6)	28 (17.5)	59 (19.7)	6 (40.0)	193 (20.3)	129 (19.6)	322 (20.0)
학비 및 생활비 마련하기	25 (9.0)	19 (10.4)	22 (7.3)	5 (4.0)	11 (12.1)	17 (10.7)	11 (6.9)	25 (8.4)	3 (20.0)	80 (8.4)	58 (8.8)	138 (8.6)
대인관계 유지하기	10 (3.6)	11 (6.0)	15 (5.0)	8 (6.3)	5 (5.5)	6 (3.8)	8 (5.0)	9 (3.0)	1 (6.7)	50 (5.3)	23 (3.5)	73 (4.5)
기 타	5 (1.8)	4 (2.2)	4 (1.3)	4 (3.2)	1 (1.1)	6 (3.8)	2 (1.3)	3 (1.0)		23 (2.4)	6 (0.9)	29 (1.8)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5)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 희망여부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 희망여부에 대한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 2-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신입생은 13.4%였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학생생활관(기숙사)에 입사를 희망하지 않은 비율은 남·여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입사를 원하는 비율은 남학생(13.9%)이 여학생(12.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의과대로 33.3%의 학생들이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범대 23.0%, 자연대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대는 9.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은 비율은 해양대가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과대 63.2%, 인문대 6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대가 4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5>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꼭 입사하고 싶다	35 (12.6)	28 (15.4)	29 (9.6)	29 (23.0)	14 (15.4)	18 (11.3)	28 (17.5)	29 (9.7)	5 (33.3)	132 (13.9)	83 (12.6)	215 (13.4)
입 사 하 고 싶 지 않 다	172 (62.1)	110 (60.4)	186 (61.8)	71 (56.3)	54 (59.3)	105 (66.0)	78 (48.8)	189 (63.2)	8 (53.3)	583 (61.3)	390 (59.2)	973 (60.4)
잘 모르겠다	70 (25.3)	44 (24.2)	86 (28.6)	26 (20.6)	23 (25.3)	36 (22.6)	54 (33.8)	810 (27.1)	2 (13.3)	236 (24.8)	186 (28.2)	421 (26.2)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6)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제시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 마련(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폭 넓은 사회경험 쌓기(16.2%), 학비 마련(9.3%), 그리고 생활비 마련(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남·여 큰 차이 없이 용돈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폭 넓은 사회경험 쌓기 및 학비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용돈 마련과 생활비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용돈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대(69.1%)였으며, 이어서 해양대 67.9%, 법정대 66.5%, 인문대 6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대는 4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가 폭 넓은 사회경험 쌓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가 27.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생명대 23.1%, 공과대 20.1%. 의과대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생명대가 14.3%로 가장 높았고, 경상대와 공과대가 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생명대가 13.2%로 가장 높았다.

<표 2-6>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용 돈 마련	184 (66.4)	121 (66.5)	208 (69.1)	66 (52.4)	41 (45.1)	108 (67.9)	100 (62.5)	189 (63.2)	7 (46.7)	617 (64.9)	407 (61.8)	1,024 (63.6)
폭 넓은 사회 경험 쌓기	37 (13.4)	25 (13.7)	44 (14.6)	34 (27.0)	21 (23.1)	14 (8.8)	23 (14.4)	60 (20.1)	3 (20.0)	142 (14.9)	119 (18.1)	261 (16.2)
학 비 마련	30 (10.8)	16 (8.8)	21 (7.0)	10 (7.9)	13 (14.3)	18 (11.3)	18 (11.3)	21 (7.0)	2 (13.3)	81 (8.5)	68 (10.3)	149 (9.3)
생활비 마련	21 (7.6)	10 (5.5)	22 (7.3)	3 (2.4)	12 (13.2)	14 (8.8)	15 (9.4)	21 (7.0)	1 (6.7)	75 (7.9)	44 (6.7)	119 (7.4)
기 타	5 (1.8)	10 (5.5)	6 (2.0)	13 (10.3)	4 (4.4)	5 (3.1)	4 (2.5)	8 (2.7)	2 (13.3)	36 (3.8)	21 (3.2)	57 (3.5)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7)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52.2%가 등록금 충당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 25.9%, 용돈 사용 14.7%, 기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등록금 충당을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57.8%)이 남학생(48.3%)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7.3%)이 여학생(2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부분들은 남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인문대가 59.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의과대 53.3%, 사범대 52.4%, 경상대와 공과대 52.2%의 순이었고, 자연대가 4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과대, 법정대, 해양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상대가 16.9%로 가장 높았고, 사범대와 공과대, 생명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충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생명대 5.5%, 해양대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등록금 충당을 위해서	164 (59.2)	91 (50.0)	157 (52.2)	66 (52.4)	45 (49.5)	82 (51.6)	71 (44.4)	156 (52.2)	8 (53.3)	459 (48.3)	381 (57.8)	840 (52.2)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66 (23.8)	57 (31.3)	70 (23.3)	29 (23.0)	21 (23.1)	40 (25.2)	54 (33.8)	75 (25.1)	5 (33.3)	260 (27.3)	157 (23.8)	417 (25.9)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4 (12.3)	22 (12.1)	51 (16.9)	21 (16.7)	15 (16.5)	21 (13.2)	21 (13.1)	50 (16.7)	2 (13.3)	150 (15.8)	87 (13.2)	237 (14.7)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5 (1.8)	4 (2.2)	6 (2.0)	2 (1.6)	5 (5.5)	7 (4.4)	9 (5.6)	6 (2.0)		34 (3.6)	10 (1.5)	44 (2.7)
기 타	8 (2.9)	8 (4.4)	17 (5.6)	8 (6.3)	5 (5.5)	9 (5.7)	5 (3.1)	12 (4.0)		48 (5.0)	24 (3.6)	72 (4.5)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8)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희망하는 장래의 직종에 대한 반응은 아래의 <표 2-8>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래 직종은 공무원(41.3%)이었으며, 이어서 교사(15.0%), 기술전문 분야(8.3%), 예술직(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및 교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5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의 경제적 상황 및 구직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44.4%)들의 경우 공무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여학생(36.9%)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여학생(19.4%)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교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전문 분야와 예술직의 희망에서도 남·여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신입생들의 희망 직종은 어느 정도 자신이 속한 단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장래 희망 직종이 공무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법정대(75.5%)이었으며, 생명대 56.0%, 해양대 52.8%, 공과대 46.2%의 순이었고, 의과대(6.7%)와 사범대(9.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래 희망직종이 교사라고 응답한 경우는 사범대가 76.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연대 30.0%, 인문대 25.3%의 순이었고, 공과대는 0.7%, 생명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전문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은 인문·사회계열 보다는 이공계열의 단과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공 무 원	74 (26.7)	135 (74.2)	125 (41.5)	12 (9.5)	51 (56.0)	84 (52.8)	45 (28.1)	138 (46.2)	1 (6.7)	422 (44.4)	243 (36.9)	665 (41.3)
교 사	70 (25.3)	13 (7.1)	4 (1.3)	99 (76.8)		5 (3.1)	48 (30.0)	2 (0.7)	1 (6.7)	114 (12.0)	128 (19.4)	242 (15.0)
기술 전문 분야	5 (1.8)	4 (2.2)	14 (4.7)	2 (1.6)	10 (11.0)	21 (13.2)	21 (13.1)	51 (17.1)	5 (33.3)	98 (10.3)	35 (5.3)	133 (8.3)
예 술 직	41 (14.8)	4 (2.2)	39 (13.0)		2 (2.2)	5 (3.1)		5 (1.7)	1 (6.7)	37 (3.9)	60 (9.1)	97 (6.0)
경 영 관 리	10 (3.6)	6 (3.3)	32 (10.6)		4 (4.4)	7 (4.4)	2 (1.3)	10 (3.3)		43 (4.5)	28 (4.2)	71 (4.4)
일반기업체	9 (3.2)	3 (1.6)	17 (5.6)	2 (1.6)	2 (2.2)	4 (2.5)	8 (5.0)	22 (7.4)		42 (4.4)	25 (3.8)	67 (4.2)
사 회 봉 사	13 (4.7)	3 (1.6)	2 (0.7)		5 (5.5)	2 (1.3)		22 (7.4)	5 (33.3)	22 (2.3)	30 (4.6)	52 (3.2)
연 구 직	2 (0.7)		7 (2.3)	4 (3.2)	3 (3.3)	7 (4.4)	15 (9.4)	6 (2.0)		30 (3.2)	14 (2.1)	44 (2.7)
금 융 기 관	1 (0.4)		11 (3.7)		2 (2.2)	1 (0.6)	4 (2.5)			11 (1.2)	8 (1.2)	19 (1.2)
농·축·어업			2 (0.7)	1 (0.8)	1 (1.1)	3 (1.9)				7 (0.7)		7 (0.4)
기 타	52 (18.8)	14 (7.7)	48 (15.9)	6 (4.8)	11 (12.1)	20 (12.6)	17 (10.6)	43 (14.4)	2 (13.3)	125 (13.1)	88 (13.4)	213 (13.2)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9)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취미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53.6%). 이어서 스포츠 분야 21.1%, 교양학술 분야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 분야 및 지역 및 사회문제 분야는 각각 6.0%와 0.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간에 어느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취미 분야라고 응답한 여학생들의 비율은 57.5%로 남학생(50.9%)들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스포츠 분야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27.9%)이 여학생(1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봉사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 및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취미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상대(60.1%), 인문대(59.2%), 해양대(5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 생명대, 해양대, 공과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봉사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13.3%로 가장 높았고, 사범대(12.7%)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 사범대, 인문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성 구성 및 단과대학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취 미 분 야	164 (59.2)	94 (51.6)	181 (60.1)	59 (46.8)	43 (47.3)	84 (52.8)	82 (51.3)	149 (49.8)	7 (46.7)	484 (50.9)	379 (57.5)	863 (53.6)
스 포 츠 분 야	35 (12.6)	38 (20.9)	51 (16.9)	24 (19.0)	25 (29.5)	39 (24.5)	55 (34.4)	70 (23.4)	3 (20.0)	265 (27.9)	75 (11.4)	340 (21.1)
봉 사 분 야	18 (6.5)	5 (2.7)	17 (5.6)	16 (12.7)	6 (6.6)	6 (3.8)	7 (4.4)	20 (6.7)	2 (13.3)	43 (4.5)	54 (8.2)	97 (6.0)
교 양 학 술 분 야	17 (6.1)	10 (5.5)	17 (5.6)	5 (4.0)	5 (5.5)	9 (5.7)	3 (1.9)	21 (7.0)		46 (4.8)	41 (6.2)	87 (5.4)
종 교 분 야	7 (2.5)	4 (2.2)	5 (1.7)	4 (3.2)	2 (2.2)	2 (1.3)		11 (3.7)	2 (13.3)	20 (2.1)	17 (2.6)	37 (2.3)
지 역 및 사 회 문 제 분 야	1 (0.4)	2 (1.1)	1 (0.3)	1 (0.8)	1 (1.1)	2 (1.3)		2 (0.7)		8 (0.8)	2 (0.3)	10 (0.6)
하 고 싶 지 않 다	35 (12.6)	29 (15.9)	29 (9.6)	17 (13.5)	9 (9.9)	17 (10.7)	13 (8.1)	26 (8.7)	2 (6.7)	85 (8.9)	91 (13.8)	176 (10.9)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10) 동아리활동의 이유

신입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 2-10>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2-1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주된 이유는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43.5%, 소질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서 24.9%,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서 13.0%, 자아발견과 인격성숙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모두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은 주된 이유로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외 이유들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질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7.5%)이 여학생(21.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아발견과 인격성숙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생명대가 47.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과대 46.8%, 법정대 46.2%, 경상대 44.5%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사범대는 3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질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과대학별로 큰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대가 29.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범대 28.6%, 경상대 27.6%, 의과대 2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명대는 2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26.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범대 14.3%, 인문대 13.7%, 생명대 1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발견과 인격 성숙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대 14.1%, 생명대 13.2%, 공과대 1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0> 동아리활동의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117 (42.2)	84 (46.2)	134 (44.5)	45 (35.7)	43 (47.3)	66 (41.5)	66 (41.3)	140 (46.8)	6 (40.0)	426 (44.8)	275 (41.7)	701 (43.5)
소질개발과 취미생활을 위해서	64 (23.1)	42 (23.1)	83 (27.6)	36 (28.6)	20 (22.0)	38 (23.9)	47 (29.4)	67 (22.4)	4 (26.7)	262 (27.5)	139 (21.1)	401 (24.9)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서	38 (13.7)	23 (12.6)	39 (13.0)	18 (14.3)	12 (13.2)	16 (10.1)	21 (13.1)	39 (13.0)	4 (26.7)	92 (9.7)	118 (17.9)	210 (13.0)
자아발견과 인격성숙을 위해서	39 (14.1)	14 (7.7)	27 (9.0)	23 (18.3)	12 (13.2)	17 (10.7)	17 (10.6)	36 (12.0)		97 (10.2)	88 (13.4)	185 (11.5)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9 (3.2)	4 (2.2)	8 (2.7)	1 (0.8)	1 (1.1)	2 (1.3)	1 (0.6)	6 (2.0)		18 (1.9)	14 (2.1)	32 (2.0)
교양지식을 얻기 위해서	3 (1.1)	6 (3.3)	3 (1.0)		2 (2.2)	4 (2.5)	2 (1.3)	3 (1.0)		18 (1.9)	5 (0.8)	23 (1.4)
기 타	7 (2.5)	9 (4.9)	1 (2.3)	3 (2.4)	1 (1.1)	16 (10.1)	6 (3.8)	8 (2.7)	1 (6.7)	38 (4.0)	20 (3.0)	58 (3.6)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3. 대학 및 학부(과) 선택 관련

1)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입학하기 전 본교에 대한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인식은 아래의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좋은 편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0%였고,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56.6%)이 남학생(47.3%)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41.3%)이 여학생(33.4%)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남학생(11.4%)이 여학생(10.0%)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본교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자연대(45.0%)로 나타났고, 이어서 생명대 44.0%, 사범대 42.8%, 공과대 41.4%의 순이었으며, 법정대는 2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 의과대, 경상대, 생명대의 순이었으며, 자연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경상대로, 14.6%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해양대 13.2%, 법정대 1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명대는 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 입학 전 본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주 좋았다	34 (12.3)	10 (5.5)	27 (9.0)	14 (11.1)	15 (16.5)	22 (13.8)	16 (10.0)	42 (14.0)	4 (26.7)	120 (12.6)	649 (9.7)	184 (11.4)
조금 좋았다	74 (26.7)	35 (19.2)	74 (24.6)	40 (31.7)	25 (27.5)	41 (25.8)	56 (35.0)	82 (27.4)	2 (13.3)	273 (28.7)	156 (23.7)	429 (26.6)
보통이다	141 (50.9)	115 (63.2)	156 (51.8)	62 (49.2)	47 (51.6)	75 (47.2)	75 (46.9)	143 (47.8)	9 (60.0)	450 (47.3)	373 (56.6)	823 (51.1)
별로 좋지 않았다	25 (9.0)	19 (10.4)	34 (11.3)	9 (7.1)	3 (3.3)	11 (6.9)	11 (6.9)	24 (8.0)		76 (8.0)	60 (9.1)	136 (8.4)
아주 좋지 않았다	3 (1.1)	3 (1.6)	10 (3.3)	1 (0.8)	1 (1.1)	10 (6.3)	2 (1.3)	8 (2.7)		32 (3.4)	6 (0.9)	38 (2.4)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2) 본교 선택시 고려사항

신입생들이 본교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사항들은 아래의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30.7%의 학생들이 본교를 선택할 때 지역적 인접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적(합격 가능성) 및 자신의 적성과 취향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진 및 장학제도 등을 우선 고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모두 지역적 인접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33.1%)이 남학생(29.1%)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조금 더 높았으며, 반면 자신의 적성과 취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전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본교를 선택할 때, 지역적 인접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인문대 34.7%, 경상대 3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인 경우에는 취업전망을 우선 고려했다는 응답한 비율이 33.3%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사범대(40.5%)의 경우에는 자신의 적성과 취향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 본교 선택시 고려사항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지역적 인접성	96 (34.7)	83 (45.6)	103 (34.2)	32 (25.4)	18 (18.8)	25 (15.7)	38 (23.8)	98 (32.8)	2 (13.3)	277 (29.1)	218 (33.1)	495 (30.7)
성 적 (합격 가능성)	75 (27.1)	50 (27.5)	88 (29.2)	23 (18.3)	22 (24.2)	43 (27.0)	30 (18.8)	82 (27.4)	4 (26.7)	257 (27.0)	160 (24.3)	417 (25.9)
자신의 적성과 취향	74 (26.7)	22 (12.1)	51 (16.9)	51 (40.5)	20 (22.0)	21 (13.2)	49 (30.6)	48 (16.1)	3 (20.0)	193 (20.3)	146 (22.2)	339 (21.1)
취업전망	11 (4.0)	13 (7.1)	21 (7.0)	13 (10.3)	16 (17.6)	25 (15.7)	19 (11.9)	33 (11.0)	5 (33.3)	102 (10.7)	54 (8.2)	156 (9.7)
장학제도 및 기숙사	3 (1.1)	2 (1.1)	7 (2.3)		5 (5.5)	20 (12.6)	1 (0.6)	10 (3.3)	1 (6.7)	37 (3.9)	12 (1.8)	49 (3.0)
우수한 교수진 및 연구활동		1 (0.5)	5 (1.7)	1 (0.8)	1 (1.1)	2 (1.3)	1 (0.6)	7 (2.3)		14 (1.5)	4 (0.6)	18 (1.1)
기 타	18 (6.5)	11 (6.0)	26 (8.6)	6 (4.8)	9 (9.9)	23 (14.5)	22 (13.8)	31 (7.0)		71 (7.5)	65 (9.9)	136 (8.4)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3) 본교 지원시 입시정보의 수집경로

본교 지원시 입시정보의 수집경로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본교를 지원할 때, 입시정보를 수집한 주된 경로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5.5%). 이어서 진학지도 담당교사(26.1%), 선배, 가족 및 친척(15.1%), 신입생 모집요강 및 홍보물(13.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모두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학생(32.4%)들에 비해 여학생(39.9%)들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남·여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진학지도 담당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8.9%)이 여학생(2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본교 지원시 입시정보의 수집경로를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60.0%), 사범대(44.4%), 법정대(38.5%), 인문대(36.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학지도 담당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30.0%), 해양대(29.6%), 법정대(28.0%), 공과대(26.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본교 지원시 입시정보의 수집경로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제주대학교	102	70	106	56	33	37	52	106	9	308	263	571
홈페이지	(36.8)	(38.5)	(35.2)	(44.4)	(36.3)	(23.3)	(32.5)	(35.5)	(60.0)	(32.4)	(39.9)	(35.5)
진학지도	69	51	71	30	23	47	48	79	2	275	145	420
담당교사	(24.9)	(28.0)	(23.6)	(23.8)	(25.3)	(29.6)	(30.0)	(26.4)	(13.3)	(28.9)	(22.0)	(26.1)
선배, 가족	38	28	44	11	16	28	28	49	1	140	103	243
및 친척	(13.7)	(15.4)	(14.6)	(8.7)	(17.6)	(17.6)	(17.5)	(16.4)	(6.7)	(14.7)	(15.6)	(15.1)
신입생 모집	46	24	37	16	13	32	16	37	2	127	96	223
요강 및 홍보물	(16.6)	(13.2)	(12.3)	(12.7)	(14.3)	(20.1)	(10.0)	(12.4)	(13.3)	(13.4)	(14.6)	(13.9)
입시학원	7		14	1	1		4	7	1	20	15	35
	(2.5)		(4.7)	(0.8)	(1.1)		(2.5)	(2.3)	(6.7)	(2.1)	(2.3)	(2.2)
기 타	15	9	29	12	5	15	12	21		81	37	118
	(5.4)	(4.9)	(9.6)	(9.5)	(5.5)	(9.4)	(7.5)	(7.0)		(8.5)	(5.6)	(7.3)
계	277	182	301	126	91	159	160	299	15	951	659	1,6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타 시·도 학생들에 대한 홍보방법

타 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교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아래의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4>에 제시되어 있는 것 처럼,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에게 본교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인 것으로 나타났고(33.2%), 이어서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30.2%), 입시요강 등 입학안내 홍보물을 통한 홍보(2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방송 및 인터넷에 익숙한 신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남·여 간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33.8%)이 여학생(32.5%)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입시요강 등 입학안내 홍보물을 통한 홍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방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대학은 사범대(41.3%), 인문대(37.2%), 법정대(34.6%), 공과대(3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37.5%), 경상대(34.9%), 생명대(33.0%), 법정대(3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시요강 등 입학안내 홍보물을 통한 홍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40.0%), 공과대(33.4%), 인문대(28.9%), 사범대(2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 타 시·도 학생들에 대한 홍보방법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국 및 지역단위 매스컴을 통한 홍보	103 (37.2)	63 (34.6)	96 (31.9)	52 (41.3)	29 (31.9)	43 (27.0)	43 (26.9)	102 (34.1)	4 (26.7)	321 (33.8)	214 (32.5)	535 (33.2)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73 (26.4)	56 (30.8)	105 (34.9)	33 (26.2)	30 (33.0)	46 (28.9)	60 (37.5)	80 (26.8)	4 (26.7)	281 (29.5)	206 (31.3)	487 (30.2)
입시요강 등 입학안내 홍보물을 통한 홍보	80 (28.9)	45 (24.7)	81 (26.9)	36 (28.6)	22 (24.2)	45 (28.3)	38 (23.8)	100 (33.4)	6 (40.0)	250 (26.3)	203 (30.8)	453 (28.1)
학생생활관 입사에 대한 정보제공	1 (0.4)	4 (2.2)	1 (0.3)	1 (0.8)		2 (1.3)	4 (2.5)			11 (1.2)	2 (0.3)	13 (0.8)
기 타	20 (7.2)	14 (7.7)	18 (6.0)	4 (3.2)	10 (11.0)	23 (14.5)	15 (9.4)	17 (5.7)	1 (6.7)	88 (9.3)	34 (5.2)	122 (7.6)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5) 지망학부(과) 선택시기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지망학부(과)를 선택한 시기는 아래의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교 3학년~입학원서 접수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2학년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0.3%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학생들은 비교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망학부(과)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고교 3학년~입학원서 접수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50.2%)이 여학생(45.8%)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지망학부(과)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39.2%)이 남학생(38.3%)들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범대와 해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은 고교 3~입학원서 접수 전에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연대(56.3%), 법정대(50.5%), 경상대(48.8%), 인문대와 생명대(48.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지망학부(과)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해양대(48.4%)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해당 기간에 지망학과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의과대 46.7%, 사범대 42.1%, 경상대 40.9%, 법정대 40.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말 이전에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2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 지망학부(과) 선택시기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입학원서 접수 기 간 중	101 (36.5)	74 (40.7)	123 (40.9)	53 (42.1)	35 (38.5)	77 (48.4)	31 (19.4)	121 (40.5)	7 (46.7)	364 (38.3)	258 (39.2)	622 (38.6)
고교 3~입학원 서 접 수 전	134 (48.4)	92 (50.5)	147 (48.8)	51 (40.5)	44 (48.4)	74 (46.5)	90 (56.3)	140 (46.8)	7 (46.7)	477 (50.2)	302 (45.8)	779 (48.4)
고 교 1~2 학 년 말	38 (13.7)	11 (6.0)	24 (8.0)	17 (13.5)	5 (5.5)	8 (5.0)	29 (18.1)	33 (11.0)	1 (6.7)	87 (9.1)	79 (12.0)	166 (10.3)
중 학 교, 또는 그 이 전	4 (1.4)	5 (2.7)	7 (2.3)	5 (4.0)	7 (7.7)		10 (6.3)	5 (1.7)		23 (2.4)	20 (3.0)	43 (2.7)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6)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적합도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적합도는 아래의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3-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다수의 신입생(65.3%)들은 자신이 입학한 모집단위가 자신의 적성 및 취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였으며, 자신이 입학한 모집단위와 자신의 적성 및 취향이 맞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모집단위의 적합도에 대한 반응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잘 맞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71.2%)이 남학생(61.2%)들 보다 높지만,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32.4%)이 여학생(22.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6.4%)과 여학생(6.2%)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잘 맞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가 8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연대 79.4%, 인문대 72.9%, 공과대 6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56.0%), 경상대(32.6%), 법정대(31.9%), 생명대(3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한 모집단위가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대는 1.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입학한 모집단위에 대한 적합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적성과 취향에 잘 맞는다	61 (22.0)	20 (11.0)	51 (16.9)	47 (37.3)	17 (18.7)	16 (10.1)	35 (21.9)	58 (19.4)	2 (13.3)	163 (17.1)	144 (21.9)	307 (19.1)
적성과 취향에 맞는 편이다	141 (50.9)	89 (48.9)	139 (46.2)	60 (47.6)	37 (40.7)	31 (19.5)	92 (57.5)	147 (49.2)	8 (53.3)	419 (44.1)	325 (49.3)	744 (46.2)
그저 그렇다	67 (24.2)	58 (31.9)	98 (32.6)	12 (9.5)	28 (30.8)	89 (56.0)	31 (19.4)	72 (24.1)	2 (13.3)	308 (32.4)	149 (22.6)	457 (28.4)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	6 (2.2)	12 (6.6)	9 (3.0)	5 (4.0)	5 (5.5)	9 (5.7)	1 (0.6)	15 (5.0)	2 (13.3)	38 (4.0)	26 (3.9)	64 (4.0)
적성과 취향에 전혀 맞지 않는다	2 (0.7)	3 (1.6)	4 (1.3)	2 (1.6)	4 (4.4)	14 (8.8)	1 (0.6)	7 (2.3)	1 (6.7)	23 (2.4)	15 (2.3)	38 (2.4)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4. 교수 및 강의 관련

1)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는 사항은 아래의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4-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에 대해 해박한 지식 전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진로(취업)지도 19.7%, 높은 학점 13.9%, 학생에 대한 이해 1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해박한 지식 전달, 진로(취업)지도, 높은 학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높은 학점 보다는 학생에 대한 이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해박한 지식 전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22.3%)과 남학생(22.4%)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높은 학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15.8%)이 여학생(11.1%)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인생관에 대한 조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해박한 지식 전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명대와 공과대에서는 진로(취업)지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해양대는 높은 학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 교수에게 기대하는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해 박 한 지식 전달	62 (22.4)	51 (28.0)	62 (20.6)	33 (26.2)	20 (22.0)	34 (21.4)	42 (26.3)	53 (17.7)	3 (20.0)	213 (22.4)	147 (22.3)	360 (22.4)
진로(취업)지도	46 (16.6)	39 (21.4)	57 (18.9)	21 (16.7)	21 (23.1)	25 (15.7)	35 (21.9)	71 (23.7)	2 (13.3)	179 (18.8)	138 (20.9)	317 (19.7)
높은 학점	37 (13.4)	27 (14.8)	43 (14.3)	8 (6.3)	12 (13.2)	35 (22.0)	24 (15.0)	37 (12.4)		150 (15.8)	73 (11.1)	223 (13.9)
학생에 대한 이해	44 (15.9)	19 (10.4)	43 (14.3)	18 (14.3)	8 (8.8)	19 (11.9)	16 (10.0)	42 (14.0)	3 (20.0)	119 (12.5)	93 (14.1)	212 (13.2)
인생관에 대한 조언	35 (12.6)	23 (12.6)	34 (11.3)	21 (16.7)	13 (14.3)	14 (8.8)	17 (10.6)	40 (13.4)	3 (20.0)	107 (11.3)	93 (14.1)	200 (12.4)
인간적 인 유대 관계	27 (9.7)	12 (6.6)	34 (11.3)	17 (13.5)	10 (11.0)	11 (6.9)	17 (10.6)	23 (7.7)	3 (20.0)	90 (9.5)	64 (9.7)	154 (9.6)
연구하는 교수	16 (5.8)	5 (2.7)	17 (5.6)	6 (4.8)		6 (3.8)	1 (0.6)	20 (6.7)		40 (4.2)	31 (4.7)	71 (4.4)
활발한 사회 활동	9 (3.2)	4 (2.2)	4 (1.3)	1 (0.8)	2 (2.2)	3 (1.9)	3 (1.9)	7 (2.3)		21 (2.2)	12 (1.8)	33 (2.0)
기 타	1 (0.4)	2 (1.1)	7 (2.3)	1 (0.8)	5 (5.5)	12 (7.5)	5 (3.1)	6 (2.0)	1 (6.7)	32 (3.4)	8 (1.2)	40 (2.5)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2) 원하는 강의방법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원하는 강의방법은 아래의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4-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3.2%의 학생들이 강의 중심의 강의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어서 실험실습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2%, 토의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0%로 나타났다. 발표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여 모두 강의 중심 강의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은 여학생(47.6%)이 남학생(40.2%)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실험실습 중심(25.3%), 토의 중심(19.2%) 및 사이버수업 방법(3.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각각 24.9%, 16.1% 및 3.0%)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간의 반응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의 단과대학인 인문대, 법정대 및 경상대에서는 원하는 강의방법을 강의 중심 강의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험실습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인문·사회계열의 단과대학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 원하는 강의방법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강 의 중심	140 (50.5)	94 (51.6)	133 (44.2)	50 (39.7)	37 (40.7)	54 (34.0)	56 (35.0)	126 (42.1)	6 (40.0)	382 (40.2)	314 (47.6)	696 (43.2)
실험실습 중심	51 (18.4)	22 (12.1)	68 (22.6)	29 (23.0)	30 (33.0)	54 (34.0)	55 (34.4)	89 (29.8)	7 (46.7)	241 (25.3)	164 (24.9)	405 (25.2)
토 의 중심	52 (18.8)	45 (24.7)	57 (18.9)	31 (24.6)	8 (8.8)	17 (10.7)	27 (16.9)	51 (17.1)	1 (6.7)	183 (19.2)	106 (16.1)	289 (18.0)
사이버수업	8 (2.9)	3 (1.6)	13 (4.3)	2 (1.6)	4 (4.4)	14 (8.8)	5 (3.1)	7 (2.3)		36 (3.8)	20 (3.0)	56 (3.5)
발 표 중심	7 (2.5)	7 (3.8)	9 (3.0)	5 (4.0)	2 (2.2)	4 (2.5)	4 (2.5)	8 (2.7)		31 (3.3)	15 (2.3)	46 (2.9)
기 타	19 (6.9)	11 (6.0)	21 (7.0)	9 (7.1)	10 (11.0)	16 (10.1)	13 (8.1)	18 (6.0)	1 (6.7)	78 (8.2)	40 (6.1)	118 (7.3)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5.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1)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느끼고 있는 본인의 대인관계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8.6%). 신입생의 26.3%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하였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69.0%)과 남학생(68.3%)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매우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사범대(80.9%)였으며, 이어서 의과대 73.3%, 공과대 70.2%, 경상대 68.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양대는 6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상대(7.3%)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인문대(6.8%), 법정대(5.5%), 해양대(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원만한 편 이 다	22 (7.9)	10 (5.5)	28 (9.3)	11 (8.7)	11 (12.1)	21 (13.2)	18 (11.3)	18 (6.0)		100 (10.5)	39 (5.9)	139 (8.6)
원만한 편이다	163 (58.8)	115 (63.2)	179 (59.5)	91 (72.2)	51 (56.0)	77 (48.4)	87 (54.4)	192 (64.2)	11 (73.3)	550 (57.8)	416 (63.1)	966 (60.0)
그저 그렇다	73 (26.4)	47 (25.8)	72 (23.9)	19 (15.1)	26 (28.6)	53 (33.3)	50 (31.3)	79 (26.4)	4 (26.7)	245 (25.8)	178 (27.0)	423 (26.3)
원만치 않은 편 이 다	15 (5.4)	8 (4.4)	16 (5.3)	4 (3.2)	3 (3.3)	5 (3.1)	4 (2.5)	7 (2.3)		43 (4.5)	19 (2.9)	62 (3.9)
매우 원만하지 않은 편이다	4 (1.4)	2 (1.1)	6 (2.0)	1 (0.8)		3 (1.9)	1 (0.6)	3 (1.0)		13 (1.4)	7 (1.1)	20 (1.2)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래의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40.6%), 이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32.7%), 좋은 인간관계 형성과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25.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적인 삶(2.2%)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삶(1.7%)이라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43.1%)이었으며, 이어서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2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좋은 인간관계(27.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은 단과대학에 따라 큰 차이 없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문대 및 사범대는 각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101 (36.5)	81 (44.5)	121 (40.2)	29 (23.0)	39 (42.9)	70 (44.0)	78 (48.8)	130 (45.3)	8 (53.3)	410 (43.1)	243 (36.9)	653 (40.6)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107 (38.6)	63 (34.6)	106 (35.2)	44 (34.9)	23 (25.3)	38 (23.9)	48 (30.0)	93 (31.1)	5 (33.3)	257 (27.0)	270 (41.0)	527 (32.7)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	77 (27.8)	38 (20.9)	87 (28.9)	34 (27.0)	18 (19.8)	40 (25.2)	40 (25.0)	69 (23.1)	1 (6.7)	250 (26.3)	154 (23.4)	404 (25.1)
좋은 인간관계 형성	70 (25.3)	41 (22.5)	64 (21.3)	42 (33.3)	26 (28.6)	44 (27.7)	39 (24.4)	72 (24.1)	6 (40.0)	226 (23.8)	178 (27.0)	404 (25.1)
화목한 가정생활	41 (14.8)	47 (25.8)	52 (17.3)	40 (31.7)	20 (22.0)	32 (20.1)	35 (21.9)	61 (20.4)	1 (6.7)	204 (21.5)	125 (19.0)	329 (20.4)
건강한 삶	32 (11.6)	25 (13.7)	45 (15.0)	24 (19.0)	13 (14.3)	19 (11.9)	26 (16.3)	35 (11.7)	2 (13.3)	136 (14.3)	85 (12.9)	221 (13.7)
타인에게 봉사하는 생활	19 (6.9)	11 (6.0)	17 (5.6)	8 (6.3)	4 (4.4)	7 (4.4)	6 (3.8)	26 (8.7)	3 (20.0)	58 (6.1)	43 (6.5)	101 (6.3)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생활	8 (2.9)	4 (2.2)	7 (2.3)	2 (1.6)	4 (4.4)	10 (6.3)	7 (4.4)	12 (4.0)	1 (6.7)	34 (3.6)	21 (3.2)	55 (3.4)
종교적인 삶	8 (2.9)	3 (1.6)	6 (2.0)	1 (0.8)	3 (3.3)	3 (1.9)	2 (1.3)	7 (2.3)	3 (20.0)	23 (2.4)	13 (2.0)	36 (2.2)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삶	5 (1.8)	4 (2.2)	4 (1.3)	2 (1.6)	2 (2.2)	2 (1.3)	1 (0.6)	8 (2.7)		20 (2.1)	8 (1.2)	28 (1.7)
기 타	3 (1.1)	2 (1.1)	4 (1.3)	2 (1.6)	6 (6.6)	8 (5.0)		5 (1.7)		23 (2.4)	5 (0.8)	28 (0.5)

주: 복수 응답

3)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자격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자격은 아래의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절반이상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56.0%)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2.2%의 학생들이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순서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61.0%가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으로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 다지기라고 응답하였으며, 21.5%가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각각 52.5%와 22.7%로 나타났다. 그러나 첨단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4.9%)이 여학생(2.6%)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학생으로 갖춰야할 자격이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 다지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가(72.0%)로 가장 높았고, 공과대(57.2%), 생명대(57.1%), 경상대(5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범대가 27.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문대(25.6%), 경상대(22.3%), 공과대(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자격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 다지기	144 (52.0)	131 (72.0)	169 (56.1)	59 (46.8)	52 (57.1)	79 (49.7)	88 (55.0)	171 (57.2)	8 (53.3)	499 (52.5)	402 (61.0)	901 (56.0)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	71 (25.6)	28 (15.4)	67 (22.3)	35 (27.8)	20 (22.0)	33 (20.8)	35 (21.9)	66 (22.1)	3 (20.0)	216 (22.7)	142 (21.5)	358 (22.2)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	24 (8.7)	11 (6.0)	14 (4.7)	11 (8.7)	8 (8.8)	9 (5.7)	9 (5.6)	20 (6.7)	2 (13.3)	68 (7.2)	40 (6.1)	108 (6.7)
첨단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것	10 (3.6)	5 (2.7)	13 (4.3)	2 (1.6)		14 (8.8)	10 (6.3)	10 (3.3)		47 (4.9)	17 (2.6)	64 (4.0)
많은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8 (2.9)	3 (1.6)	7 (2.3)	9 (7.1)	3 (3.3)	3 (1.9)	7 (4.4)	7 (2.3)		29 (3.0)	18 (2.7)	47 (2.9)
기 타	20 (7.2)	4 (2.2)	31 (10.3)	10 (7.9)	8 (8.8)	21 (13.2)	11 (6.9)	25 (8.4)	2 (13.3)	92 (9.7)	40 (6.1)	132 (8.2)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4)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은 아래의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52.3%의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으로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2.0%로 나타났다. 인간관계(7.0%), 인격(6.1%), 운(3.2%), 학벌(2.8%), 또는 가문 및 배경(2.0%)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비교적 건전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실력 및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55.2%)이 남학생(50.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여학생(23.7%)이 남학생(20.8%)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인간관계와 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실력 및 능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과대(62.8%)였으며, 이어서 사범대(59.5%), 인문대(55.6%), 경상대(55.5%), 법정대(5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범대(27.0%), 생명대(24.2%), 법정대(21.4%), 인문대(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실력 및 능력	154 (55.6)	101 (55.5)	167 (55.5)	75 (59.5)	40 (44.0)	74 (46.5)	59 (36.9)	162 (54.2)	10 (66.7)	478 (50.3)	364 (55.2)	842 (52.3)
노 령	59 (21.3)	39 (21.4)	60 (19.9)	34 (27.0)	22 (24.2)	31 (19.5)	50 (31.3)	58 (19.4)	1 (6.7)	198 (20.8)	156 (23.7)	354 (22.0)
인 간 관 계	16 (5.8)	9 (4.9)	18 (6.0)	7 (5.6)	9 (9.9)	13 (8.2)	13 (8.1)	27 (9.0)	1 (6.7)	74 (7.8)	39 (5.9)	113 (7.0)
인 격	21 (7.6)	8 (4.4)	18 (6.0)	5 (4.0)	8 (8.8)	9 (5.7)	9 (5.6)	18 (6.0)	3 (20.0)	58 (6.1)	41 (6.2)	99 (6.1)
운	8 (2.9)	3 (1.6)	15 (5.0)		1 (1.1)	7 (4.4)	8 (5.0)	9 (3.0)		40 (4.2)	11 (1.7)	51 (3.2)
학 벌	5 (1.8)	6 (3.3)	10 (3.3)	2 (1.6)	1 (1.1)	6 (3.8)	6 (3.8)	9 (3.0)		28 (2.9)	17 (2.6)	456 (2.8)
재 령	8 (2.9)	7 (3.8)	4 (1.3)		2 (2.2)	1 (0.6)	5 (3.1)	7 (2.3)		23 (2.4)	11 (1.7)	34 (2.1)
가문 및 배경	1 (0.4)	4 (2.2)	6 (6.6)	1 (0.8)	2 (2.2)	10 (6.3)	4 (2.5)	4 (1.3)		24 (2.5)	8 (1.2)	32 (2.0)
기 타	5 (1.8)	5 (2.7)	3 (1.0)	2 (1.6)	6 (6.6)	8 (5.0)	6 (3.8)	5 (1.7)		28 (2.9)	12 (1.8)	40 (2.5)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5)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반응은 아래의 <표 5-5>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5-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빈부의 격차(29.2%)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실업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26.4%,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이 12.2%, 그리고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인 반응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생명대, 해양대 및 자연대를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의 신입생들은 가장 큰 문제점을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하였다. 생명대, 해양대 및 자연대는 실업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5>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빈부의 격차	97 (35.0)	53 (29.1)	89 (29.6)	42 (33.3)	17 (18.7)	37 (23.3)	35 (21.9)	93 (31.1)	7 (46.7)	237 (24.9)	233 (35.4)	470 (29.2)
실업문제	75 (27.1)	52 (28.6)	70 (23.3)	22 (17.5)	28 (30.8)	54 (34.0)	48 (30.0)	75 (25.1)	1 (6.7)	252 (26.5)	173 (26.3)	425 (26.4)
부정부패	31 (11.2)	27 (14.8)	34 (11.3)	20 (15.9)	8 (8.8)	18 (11.3)	16 (10.0)	41 (13.7)	1 (5.9)	136 (14.3)	60 (9.1)	196 (12.2)
경제성장	20 (7.2)	8 (4.4)	38 (12.6)	7 (5.6)	9 (9.9)	14 (8.8)	27 (16.9)	27 (9.0)	1 (6.7)	91 (9.6)	60 (9.1)	151 (9.4)
정치적 불안정	14 (5.1)	19 (10.4)	23 (7.6)	11 (8.7)	8 (8.8)	7 (4.4)	12 (7.5)	23 (7.7)	1 (5.9)	76 (8.0)	42 (6.4)	118 (7.3)
사회질서	5 (1.8)	4 (2.2)	5 (1.7)	8 (6.3)	6 (6.6)	3 (1.9)	3 (1.9)	11 (3.7)	2 (11.8)	28 (2.9)	19 (2.9)	47 (2.9)
환경오염	6 (2.2)	4 (2.2)	9 (3.0)	3 (2.4)	2 (2.2)	8 (5.0)	3 (1.9)	6 (2.0)		28 (2.9)	13 (2.0)	41 (2.5)
청소년비행	9 (3.2)	2 (1.1)	2 (0.7)	4 (3.2)		3 (1.9)	2 (1.3)	2 (0.7)		20 (2.1)	4 (0.6)	24 (1.5)
향락및 사치문제	3 (1.1)	1 (0.5)	3 (1.0)	1 (0.8)	1 (1.1)	3 (1.9)	2 (1.3)	6 (2.0)	1 (6.7)	13 (1.4)	8 (1.2)	21 (1.3)
불신풍조	1 (0.4)	3 (1.6)		3 (2.4)	2 (2.2)			2 (0.7)	1 (5.9)	7 (0.7)	5 (0.8)	12 (0.7)
국가안보	2 (0.7)	1 (0.5)	3 (1.0)		1 (1.1)	1 (0.6)	1 (0.6)	1 (0.3)		7 (0.7)	3 (0.5)	10 (0.6)
기 타	14 (5.1)	8 (4.4)	25 (8.3)	5 (4.0)	9 (9.9)	11 (6.9)	11 (6.9)	12 (4.0)		56 (5.9)	39 (5.9)	95 (5.9)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6. 직업능력개발원 관련

1) 대학생활 중 주요 상담원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의논할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아래의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입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의논할 상대로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40.7%), 이어서 어머니(15.5%), 형제 및 자매(13.2%), 선배 및 후배(11.2%), 아버지(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원이나 교외 상담기관을 찾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여 모두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 형제 및 자매, 또는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아버지와 선배 및 후배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1> 대학생활 중 주요 상담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 버 지	16 (5.8)	16 (8.8)	14 (4.7)	16 (12.7)	9 (9.9)	15 (9.4)	19 (11.9)	34 (11.4)	4 (26.7)	109 (11.5)	34 (5.2)	143 (8.9)	
어 머 니	52 (18.8)	26 (14.3)	54 (17.9)	25 (19.8)	6 (6.6)	22 (13.8)	19 (11.9)	44 (14.7)	2 (13.3)	120 (12.6)	130 (19.7)	250 (15.5)	
형제 및 자매	39 (14.1)	24 (13.2)	36 (12.0)	17 (13.5)	13 (14.3)	16 (10.1)	27 (16.9)	39 (13.0)	2 (13.3)	111 (11.7)	102 (15.5)	213 (13.2)	
친 척	5 (1.8)	11 (6.0)	6 (2.0)	2 (1.6)	4 (4.4)	1 (0.6)	4 (2.5)	7 (2.3)		24 (2.5)	16 (2.4)	40 (2.5)	
친 구	116 (41.9)	70 (38.5)	132 (43.9)	34 (27.0)	36 (39.6)	75 (47.2)	64 (40.0)	123 (41.1)	5 (33.3)	374 (39.3)	281 (42.6)	655 (40.7)	
선배 및 후배	28 (10.1)	13 (7.1)	34 (11.3)	15 (11.9)	13 (14.3)	19 (11.9)	18 (11.3)	39 (13.0)	1 (6.7)	125 (13.1)	55 (8.3)	180 (11.2)	
교 수	7 (2.5)	5 (2.7)	7 (2.3)	10 (7.5)	4 (4.4)	2 (1.3)	4 (2.5)			27 (2.8)	12 (1.8)	39 (2.4)	
직업능력개발원				1 (0.8)						1 (0.1)		1 (0.1)	
교외 상담기관		2 (1.1)								1 (0.1)	1 (0.2)	2 (0.1)	
혼 자	14 (5.1)	15 (8.2)	18 (6.0)	6 (4.8)	6 (6.6)	9 (5.7)	5 (3.1)	13 (4.3)	1 (6.7)	59 (6.2)	28 (4.2)	87 (5.4)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2)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희망여부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희망여부에 대한 반응은 아래의 <표 6-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상담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3.4%에 이르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필요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상담을 희망하는 비율은 여학생(78.8%)이 남학생(75.2%)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4.8%)이 여학생(21.2%)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필요할 경우 상담 받기를 희망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공과대로 80.9%의 학생들이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법정대(80.8%), 사범대(80.2%), 의과대(8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경상대(27.6%), 인문대(24.5%), 자연대(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희망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받고 싶다	209 (75.5)	147 (80.8)	218 (72.4)	101 (80.2)	71 (74.7)	110 (69.2)	124 (77.5)	242 (80.9)	12 (80.0)	715 (75.2)	519 (78.8)	1,234 (76.6)
받고 싶지 않다	68 (24.5)	35 (19.2)	83 (27.6)	25 (19.8)	20 (22.0)	49 (30.8)	36 (22.5)	57 (19.1)	3 (20.0)	236 (24.8)	140 (21.2)	376 (23.4)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3) 받고 싶은 상담내용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받고 싶다고 응답한 상담내용은 아래의 <표 6-3>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담을 받을 경우 받고 싶은 내용이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79.4%), 이어서 진학(16.8%), 대학생활 적응(14.8%), 학업(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 및 학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진학, 학업, 또는 대인관계에, 여학생은 진로 및 취업, 대학생활 적응, 인생 및 가치관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86.7%로 가장 높았으며, 생명대, 자연대, 공과대, 인문대와 사범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의과대와 사범대의 경우에는 인생 및 가치관 및 시간 관리라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 받고 싶은 상담내용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진로 및 취업	220 (79.4)	144 (79.1)	236 (78.4)	100 (79.4)	75 (82.4)	122 (76.7)	130 (81.3)	239 (79.9)	13 (86.7)	746 (78.4)	533 (80.9)	1,279 (79.4)
진 학	53 (19.1)	29 (15.9)	40 (13.3)	21 (16.7)	12 (13.2)	25 (15.7)	34 (21.3)	53 (17.7)	3 (20.0)	161 (16.9)	109 (16.5)	270 (16.8)
대학생활 적응	37 (13.4)	34 (18.7)	58 (19.3)	15 (11.9)	8 (8.8)	19 (11.9)	19 (11.9)	45 (15.1)	3 (20.0)	138 (14.5)	100 (15.2)	238 (14.8)
학 업	41 (14.8)	22 (12.1)	38 (12.6)	18 (14.3)	7 (7.7)	26 (16.3)	24 (15.0)	32 (10.7)		125 (13.1)	83 (12.6)	208 (12.9)
인생 및 가치관	29 (10.5)	22 (12.1)	26 (8.6)	18 (14.3)	7 (7.7)	8 (5.0)	12 (7.5)	29 (9.7)	3 (20.0)	78 (8.2)	76 (11.5)	154 (9.6)
대 인 관 계	21 (9.6)	19 (10.4)	20 (6.6)	7 (5.6)	12 (13.2)	11 (6.9)	14 (8.8)	24 (8.0)	1 (6.7)	81 (8.5)	48 (7.3)	129 (8.0)
시 간 관 리	16 (5.8)	12 (6.6)	7 (2.3)	14 (11.1)	4 (4.4)	9 (5.7)	5 (3.1)	23 (7.7)	2 (13.3)	46 (4.8)	44 (6.7)	90 (5.6)
경제적인 문제	14 (5.1)	12 (6.6)	12 (4.0)	4 (3.2)	3 (3.3)	8 (5.0)	5 (3.1)	15 (5.0)		51 (5.4)	22 (3.3)	73 (4.5)
성격·정서문제	10 (3.6)	3 (1.6)	7 (2.3)	6 (4.8)	3 (3.3)	8 (5.0)	8 (5.0)	12 (4.0)	1 (6.7)	30 (3.2)	28 (4.2)	58 (3.6)
가정 및 가족	3 (1.1)	1 (0.5)	4 (1.3)	6 (4.8)		3 (4.9)		3 (1.0)		13 (1.4)	7 (1.1)	20 (1.2)
외 모	4 (1.4)		10 (3.3)	1 (0.8)	1 (1.1)	1 (0.6)	1 (0.6)	1 (0.3)		12 (1.3)	7 (1.1)	19 (1.2)
음주 및 흡연	2 (0.7)	1 (0.5)	7 (2.3)	1 (0.8)	2 (2.2)	4 (2.5)				14 (1.5)	3 (0.5)	17 (1.1)
기 타	8 (2.9)	4 (2.2)	13 (4.3)	2 (1.6)	9 (9.9)	11 (6.9)	8 (5.0)	10 (3.3)	1 (6.7)	50 (5.3)	16 (2.4)	66 (4.1)

주 : 복수 응답

4) 받고 싶은 심리검사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받고 싶어 하는 심리검사는 아래의 <표 6-4>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만약 받게 된다면 신입생들은 진로적성검사를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흥미검사(48.3%)와 성격검사(44.5%)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다수의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분야의 검사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순위는 차이가 없었지만, 진로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성격검사와 자아개념검사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67.5%, 51.1%, 47.3%, 28.2%)이 남학생(56.6%, 46.4%, 42.6%, 23.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욕구진단검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진로적성검사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정대가 68.1%로 가장 높았고, 경상대 67.1%, 공과대 63.2% 인문대 6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흥미검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법정대(52.7%), 인문대(49.8%), 자연대(4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검사라고 응답한 비율도 의과대가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범대(51.5%), 자연대(46.9%), 사범대(4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과대의 경우에는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자아개념검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4> 받고 싶은 심리검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진로적성검사	172 (62.1)	124 (68.1)	202 (67.1)	67 (53.2)	52 (57.1)	79 (49.7)	90 (56.3)	189 (63.2)	8 (53.3)	538 (56.6)	445 (67.5)	982 (61.0)
직업흥미검사	138 (49.8)	96 (52.7)	141 (46.4)	53 (42.1)	43 (47.3)	75 (47.2)	78 (48.8)	144 (48.2)	8 (53.3)	441 (46.4)	337 (51.1)	778 (48.3)
성 격 검 사	127 (45.8)	84 (46.2)	155 (51.5)	59 (46.8)	29 (31.9)	63 (39.6)	75 (46.9)	117 (39.1)	8 (53.3)	405 (42.6)	312 (47.3)	717 (44.5)
자아개념검사	70 (25.3)	50 (27.5)	63 (20.9)	37 (29.4)	27 (29.7)	41 (25.8)	41 (25.6)	74 (24.7)	9 (60.0)	226 (23.8)	186 (28.2)	412 (25.6)
욕구진단검사	34 (12.3)	28 (15.4)	35 (11.6)	17 (13.5)	13 (14.3)	26 (16.4)	22 (13.8)	43 (14.4)	2 (13.3)	141 (14.8)	79 (12.0)	220 (13.7)
기 타	10 (3.6)	9 (4.9)	20 (6.6)	9 (7.1)	6 (6.6)	14 (8.8)	13 (8.1)	14 (4.7)		68 (7.2)	27 (4.1)	95 (5.9)

주 : 복수 응답

5)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응답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6-5>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장 많은 신입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진로상담 프로그램(37.0%)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15.7%), 자기성장 프로그램(14.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시 진로나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여 모두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진로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남학생(40.1%)이 여학생(32.6%)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16.0%)이 여학생(12.9%)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요가명상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진로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해양대(43.4%)였고, 경상대 41.9%, 자연대 37.5%, 공과대 37.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생명대(20.9%), 사범대(18.3%), 경상대(17.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의과대가 20.0%로 가장 높았고, 자연대(16.9%), 경상대(16.6%), 인문대(15.9%), 생명대(1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99 (35.7)	65 (35.7)	126 (41.9)	36 (28.6)	27 (29.7)	69 (43.4)	60 (37.5)	111 (37.1)	3 (20.0)	381 (40.1)	215 (32.6)	596 (37.0)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40 (14.4)	22 (12.1)	54 (17.9)	23 (18.3)	19 (20.9)	19 (11.9)	22 (13.8)	49 (16.4)	5 (33.3)	151 (15.9)	102 (15.5)	253 (15.7)
자기성장 프로그램	44 (15.9)	23 (12.6)	50 (16.6)	13 (10.3)	14 (15.4)	20 (12.6)	27 (16.9)	43 (14.4)	3 (20.0)	152 (16.0)	85 (12.9)	237 (14.7)
요가명성 프로그램	38 (13.7)	20 (11.0)	27 (9.0)	21 (16.7)	11 (12.7)	10 (6.3)	14 (8.8)	34 (11.4)	3 (20.0)	61 (6.4)	117 (17.8)	178 (11.1)
인생설계 자기계발	25 (9.0)	30 (16.5)	20 (6.6)	12 (9.5)	11 (12.1)	9 (5.7)	14 (8.8)	32 (10.7)	1 (6.7)	92 (9.7)	62 (9.4)	154 (9.6)
동료상담 프로그램	6 (2.2)	3 (1.6)	4 (1.3)	4 (3.2)		12 (7.5)	6 (3.8)	6 (2.0)		31 (3.3)	10 (1.5)	41 (2.5)
멘토링 프로그램	7 (2.5)	8 (4.4)	7 (2.3)	4 (3.2)		3 (1.9)	1 (0.6)	6 (2.0)		14 (1.5)	22 (3.3)	36 (2.2)
독서치료 프로그램	7 (2.5)	5 (2.7)	2 (0.7)	4 (3.2)		3 (1.9)	5 (3.1)	5 (1.7)		19 (2.0)	12 (1.8)	31 (1.9)
수화교실	4 (1.4)	2 (1.1)	4 (1.3)	1 (0.8)	1 (1.1)	3 (1.9)	1 (0.6)	5 (1.7)		12 (1.3)	9 (1.4)	21 (1.3)
원예치료 프로그램	2 (0.7)	2 (1.1)	1 (0.3)	2 (1.6)		1 (0.6)	2 (1.3)	2 (0.7)		5 (0.5)	7 (1.1)	12 (0.7)
코칭프로그램					2 (2.2)		2 (1.3)	2 (0.7)		3 (0.3)	3 (0.5)	6 (0.4)
기 타	5 (1.8)	2 (1.1)	6 (2.0)	6 (4.8)	6 (6.6)	10 (6.3)	6 (3.8)	4 (1.3)		30 (3.2)	15 (2.3)	45 (2.8)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주 : 복수 응답

6) 사회봉사활동 참여의사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의사는 아래의 <표 6-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76.6%).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3.4%에 불과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4%로 남학생의 70.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29.5%)이 여학생(14.6%)에 비해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의과대로 신입생 전체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사범대(90.5%), 인문대(84.5%), 법정대(79.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양대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연대(31.9%), 경상대(27.9%), 공과대(2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6> 사회봉사활동 참여의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있 다	234 (84.5)	145 (79.7)	217 (72.1)	114 (90.5)	71 (78.0)	107 (67.3)	109 (68.1)	221 (73.9)	15 (100)	670 (70.5)	563 (85.4)	1,233 (76.6)
없 다	43 (15.5)	37 (20.3)	84 (27.9)	12 (9.5)	20 (22.0)	52 (32.7)	51 (31.9)	78 (26.1)		281 (29.5)	96 (14.6)	377 (23.4)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7)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2006학년도 신입생들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선택한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은 아래의 <표 6-7>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회봉사활동은 재가복지(16.0%), 업무보조(15.9%), 단순 노력봉사(15.1%), 학습, 또는 생활지도(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은 재가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1.1%), 이어서 학습, 또는 생활지도 16.7%, 업무보조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단순 노력봉사(17.6%)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업무보조 16.3%, 재가복지 12.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재가복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의과대가 46.7%로 가장 높았고, 법정대(18.7%), 생명대(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보조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상대가 19.3%로 가장 높았으며, 사범대(19.0%), 해양대(18.2%), 생명대(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노력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법정대(18.7%)였으며, 공과대(17.7%), 인문대(17.0%), 생명대(1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7> 참여하고 싶은 사회봉사활동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재 가 복 지	48 (17.3)	34 (18.7)	45 (15.0)	19 (15.1)	16 (17.6)	22 (13.8)	15 (9.4)	52 (17.4)	7 (46.7)	119 (12.5)	139 (21.1)	258 (16.0)
업 무 보 조	37 (13.4)	30 (16.5)	58 (19.3)	24 (19.0)	16 (17.6)	29 (18.2)	20 (12.5)	40 (13.4)	2 (13.3)	155 (16.3)	101 (15.3)	256 (15.9)
단순 노력봉사	47 (17.0)	34 (18.7)	31 (10.3)	16 (12.7)	14 (15.4)	23 (14.5)	24 (15.0)	53 (17.7)	1 (6.7)	167 (17.6)	76 (11.5)	243 (15.1)
학습, 또는 생활 지도	45 (16.2)	25 (13.7)	40 (13.3)	31 (24.6)	7 (7.7)	7 (4.4)	33 (20.6)	26 (8.7)	1 (6.7)	105 (11.0)	110 (16.7)	215 (13.4)
전문기술봉사	28 (10.1)	6 (3.3)	30 (10.0)	2 (1.6)	5 (5.5)	10 (6.3)	16 (10.0)	26 (8.7)	4 (26.7)	78 (8.2)	49 (7.4)	127 (7.9)
프로그램 진행 및 보 조	17 (6.1)	11 (6.0)	19 (6.3)	10 (7.9)	9 (9.9)	11 (6.9)	10 (6.3)	19 (6.4)		58 (6.1)	48 (7.3)	106 (6.6)
상 담 봉 사	16 (5.8)	10 (5.5)	25 (5.3)	6 (4.8)	5 (5.5)	8 (5.0)	5 (3.1)	13 (4.3)		35 (3.7)	53 (8.0)	88 (5.5)
기 타	19 (6.9)	13 (7.1)	26 (8.6)	7 (5.6)	12 (13.2)	26 (16.4)	11 (6.9)	29 (9.7)		108 (11.4)	35 (5.3)	143 (8.9)
무 응 답	20 (7.2)	19 (10.4)	27 (9.0)	11 (8.7)	74 (75.5)	23 (14.5)	26 (16.3)	41 (13.7)		126 (13.2)	48 (7.3)	174 (10.8)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8)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는 아래의 <표 6-8>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 6-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7%로 나타났다.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강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8.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은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는 반응이 58.1%로 남학생(47.3%)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범대(73.8%), 의과대(66.7%), 인문대(59.2%), 법정대(56.0%), 경상대(50.5%)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연대(57.5%), 공과대(56.2%), 해양대(56.0%), 생명대(52.7%)는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의사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있 다	164 (59.2)	102 (56.0)	152 (50.5)	93 (73.8)	43 (47.3)	70 (44.0)	68 (42.5)	131 (43.8)	10 (66.7)	450 (47.3)	383 (58.1)	833 (51.7)
없 다	113 (40.8)	80 (44.0)	149 (49.5)	33 (26.2)	48 (52.7)	89 (56.0)	92 (57.5)	168 (56.2)	5 (33.3)	501 (52.7)	276 (41.9)	777 (48.3)
계	277 (100)	182 (100)	301 (100)	126 (100)	91 (100)	159 (100)	160 (100)	299 (100)	15 (100)	951 (100)	659 (100)	1,610 (100)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조사는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①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② 대학생활 관련, ③ 대학 및 학부(과) 선택 관련, ④ 교수 및 강의 관련, ⑤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⑥ 직업능력개발원 관련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의견들을 분석하여 향후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연구 및 행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 중 설문에 응답한 1,633명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3명을 제외한 1,6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2005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설문응답들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들의 대부분은 제주도 출신(92.2%)으로, 부산·경남은 2.0%, 재수를 경험한 비율은 9.2%에 불과하였다(사범대 및 의과대는 재수 비율이 각각 25.4%와 22.4%). 신입생의 보호자들은 대부분은 부모(93.4%)였고, 부모 모두가 생존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86.2%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56.5%)이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은 40.0%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직업은 기타(29.8%), 서비스업(15.2%), 건설업(13.0%)의 순이었고, 대부분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8%).

둘째, 신입생들의 대학진학의 주된 목적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0.6%),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전공공부(32.6%)와 다양한 사회경험(24.2%)이라고 응답하였고, 신입생의 대부분은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77.7%), 또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진로에 대한 방향 세우기로 나타났다(40.1%).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비율은 도외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신입생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13.4%), 용돈 마련을 위해(63.6%)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충당을 위해 장학금을 필요로 하며(52.2%), 장래 갖고 싶은 직종으로는 공무원(41.3%)과 교사(15.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맺

기 위해(43.5%) 취미 분야의(53.6%)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학 전 제주대학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10.8%) 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신입생들(38.0%)이 더 많았고, 본교를 선택할 때 지역적 인접성(30.7%), 합격 가능성(25.9%), 자신의 적성과 취향(21.1%)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망학부(과)는 고교 3학년에서 입학원서 접수기간 전에 선택한 경우(48.4%)가 많았으며, 입시정보는 주로 대학 홈페이지(35.5%) 및 진학 지도교사(26.1%)를 통해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의 절반이상은 자신이 입학한 모집단위가 자신의 적성 및 취향에 맞는 편(65.3%)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학 홍보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33.2%)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30.2%)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입생들은 교수에게 해박한 지식 전달(22.4%) 및 진로지도(19.7%)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의(18.0%)나 실습 중심(25.2%)의 강의방법 보다는 강의 중심 강의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2%).

다섯째, 신입생의 대부분은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68.6%), 대학에서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6.0%). 또한 신입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40.6%), 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활(32.7%)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2.3%). 신입생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의 격차(29.2%)와 실업문제(26.4%)를 지적하였다.

끝으로, 신입생들은 대학생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주로 친구와 주로 의논할 것이라고 응답(40.7%)하였으나, 절반이상은 필요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76.6%)고 응답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어 하는 상담은 진로 및 취업(79.4%), 진학(16.8%)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진로적성검사(61.0%), 직업흥미검사(48.3%), 또는 성격검사(44.5%) 등의 심리검사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입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37.0%),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15.7%), 자기성장 프로그램(14.7%)을 들고 있으며, 다수의 학생들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76.6%), 주로 재가복지(16.0%), 업무보조(15.9%), 단순 노력봉사

(15.1%)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51.7%로 나타났다.

2. 결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내린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의 강화가 필요하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입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취업 또는 진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유도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이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내용 및 심리검사도 모두 취업, 또는 진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신입생들의 관심 및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취업 및 진학관련 상담 및 심리검사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원 내의 타 부서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직업능력개발원의 취업관련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기회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신입생의 대부분은 해외여행이나 외국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결국 취업상의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확대와 학교 차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및 교직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공무원 및 교직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공무원 및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보수집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원내의 취업지원 및 국가고시지원 관련 부서의 역할 강화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제주대학교의 현행 입시 홍보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대학교에서는 수시로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본교에 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진학지도 담당교사 등을 통해 얻었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입시관련 홈페이지의 내용 보강 및 확대, 그리고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등 보다 효과적인 입시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교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학생들의 자긍심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06학년도 신입생 중 본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8.0%에 불과하였고, 보통 또는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0%에 달하였다. 긍정적인 인식 및 자긍심을 느끼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본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학생들(76.6%)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특히 취업 관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자료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문제 해결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충원 및 각종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끝으로,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신입생 실태조사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만으로는 재학생 전체의 성향 및 행동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학생관련 자료수집 및 상황 판단을 위해 신입생 실태조사와 함께, 여러 가지 학생생활과 관련 실태조사 연구의 실시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두화(2005). '2004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6집. 제주대학교 상담·봉사 센터.
- 김두화(2006). '2005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7집. 제주대학교 직업능력 개발원.
- 소황옥, 전철은, 이호웅(2004). '2004 신입생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11. 1-36.
- 세계일보(2004). 대학구조조정 해외 사례. 2004. 9. 6.

<Abstract>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s Freshmen 2006

Park Jong-pil, Kim Doo-hwa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collect basic data on freshmen in 2006 and to understand students' general matters for make substantial measures on academic affairs in our university.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composed a questionnaire (on students' current conditions, values, university life etc) based on earlier surveys and distributed and collected during the orientation period. 1610 students are answered the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suggest that:

First, it need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to take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When asked main concerns, most students answered that their main concern or interest is 'getting a job' or 'entering a school of higher grade'. Also they answered that the reason to enter the university is to find more prospective job(50.4%) and want to take counseling service on 'getting a job' or 'entering a school of higher grade'(79.4%). Thus, to meet their needs, it needs to increase the opportunity to take psychological tes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with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related university offices.

Second, it need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of oversea training for students. Most of the students(77.7%) had a positive image on the oversea training and these experiences are directly related with students' competitiveness in job markets. Thus, it needs to take supportive steps to collect sufficient fund for the oversea training.

Third, it needs to support students who want to be a public official or teacher. Many students(56.3%) preferred to be a public officer or teachers, so that the university should take some measures to support these students.

Fourth, the current strategy for university advertisement should be reappraised. Cheju National University holds several expositions for highschool graduates to advertise the university, but it revealed that these expositions are not effective because many students replied that they found useful information through university's homepage, highschool teachers(61.6%). Thus, the university should change current strategy based on exposition for highschool students and make more effective plans for advertising departments and the university.

Fifth, the university should take some measures to increase students' pride which is related to the university. 38.0%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y are proud of the university, but 62.0%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y are normal or not proud of the university.

Sixth, it need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CNU Career Center. Most of the students(76.6%) have showed some interests in counseling and various tests(especially, job-related tests), thus CNU Career Center needs to increase personnels and provide various services and supports to solve students' problems.

Finally, the university collect data only from freshmen, and results from these data analysis have some limitation to understand all students in the university. Thus, to get more accurate information and to make more effective decision making, the survey should extended to all students in the university.